

구원자 예수의 탄생

신학박사 조 덕운

누가복음 2: 8-14

8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더라. 9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10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11 이 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12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13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14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1. 메시아 탄생의 메시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들은 천사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6 마일 떨어진 베들레헴 마을의 외곽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음을 알려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아기 어머니 마리아가 로마 황제 오거스투스의 칙령에 따른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하여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와야 했는데, 마침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이 고을의 한 마굿간에서 해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게된 모습으로서는 전혀 격에 맞지 않는 매우 비천한 출생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적은 수의 사람들만 축하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의 부모들과 소수의 목자들, 그리고 멀리 다른 나라에서 온 현자들 몇 사람이 전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천사들과 함께 노래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로다”라고. 이런 비천한 탄생이 어떻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으로 생각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랫동안 비밀에 부쳐있었던 인간 구원의 계획을 이룩하기 위하여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한 가난한 유대인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며, 이 탄생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하늘의 온 군대와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내는 평화의 메시지의 전달자, 죄와 사망의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구원자로서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 아기 탄생은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한 선하신 구원의 미션을 지닌 메시아 탄생의 이벤트 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화평의 메시지, 선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오고 계십니다. 특히, 자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직접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그분의 마음의 간절함을 우리 모두 알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21-22]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비록 범죄하여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면전에서 축출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동물의 피를 흘려 옷을 만들어 입혀 주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체제도 동물의 희생을 통해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속죄의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오고자 하는 모든 인간을 위한 속죄양, 즉 유월절 어린양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죄인들에게 화평의 메시지, 다시 자신의 면전으로 그들을 받아 주시겠다는 선한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회개하는 모든 죄인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에덴으로 돌아가는 Home Coming 의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소명을 가진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입니다.

2. 메시아 탄생의 예언과 실현

메시아의 탄생의 시기에 관하여 대언자 다니엘이 다음과 같이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다니엘 9:25-26]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세르크스 [Artaxerxes Longimanus] 왕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을 기원전 454 년에 내렸습니다.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 즉 $69 \times 7 = 483$ 년 후에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나타날 것이며, 그 후에 끊어질 것, 즉 죽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정확한 날자에 이루어 졌습니다. 주후 32 년 4 월 6 일,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찬양받으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4 일 후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죽으심으로 다니엘의 예언을 이루시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대언자 미가에 의해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미가 5:2].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탄생할 것도 대언자 이사야에 의하여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7:14].

이러한 예언들에도 불구하고 1 세기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교육하지도 않고, 그를 영접할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메시아 예수님을 오해하고,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많이 가르치고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을 오히려 특권으로 여기며 여러 사람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머지 않아 다시 오실 것으로 믿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3. 말세의 징조와 권면

구약시대의 대언자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베드로 모두 주님의 재림 이전에 크게 배교하는 일과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벗어나 뉴에이지와 동성 결혼의 용납, 그리고 임신 중 뱃속의 아기들을 죽이는 잔인한 일들을 필요한 일이라고 인정하는 죄악을 저지르며,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소위 '현대적 교회'임을 자처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 아파합니다. 2020 년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다음 네가지 일에 유의하고 열심히 하기를 권면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개인과 교회 안에 활발히 건재하시도록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즉,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혼이 되도록 함이 죄 없는 자신을 바치신 주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머지 않아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화의 역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지도록 노력 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23] 평강의 바로 그[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둘째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 안으로 모셔서 그 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활동하심으로써 기쁨과 화평과 행복을 맛보게 되었으니, 이제 이 복된 소식을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 교회 시대에는 복음 전도를 전업으로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넓히는 일을 온 인생을 바쳐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돕는 역할은 성도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교직자들의 일을 돕는 것은 몸과 물질로 하는 것 뿐 아니라 기도와 심령으로 조력자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 주는 것임을 알고 이런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예치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사도행전 8 장], 그 후에 사마리아에서도 힘 있는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전도 사역에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성경은 주님의 재림 전에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더불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급속도로 쾌락과 죄악의 길로 빠지고 있으며, 도덕 기준이 느슨해지면서 동성 연애와 마약 탐닉등 죄스런 생활 패턴을 용납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을 경멸하고 배척하는 일을 서슴치 않음으로써 사탄 편에 서는 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힌두교, 불교 등의 우상 숭배 종교들이 소위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에게 '뉴에이지'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이 보편화 되고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에 정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3-4]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비웃는 자들[scoffers]이라 함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일을 비웃고 경멸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크리스찬들을 경멸과 증오로 바라보고 크리스찬 신앙을 빈정거림과 독설을 가지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부터 되도록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에 계속 거하고 성장하여야 합니다.

[요한 1 서 4:13-15]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휴거와 주님의 재림을 간절한 기대심으로 기다리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다는 여러 가지 징표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 하나는 1947년 11월에 무려 2천년 간의 유랑 끝에 유대인들의 국가인 이스라엘이 건국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유의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관찰하면서 ‘주님의 날’이 매우 가까운 사실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경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날을 고대하는 자세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욱 헌신하게 하며, 우리 개인 생활과 교회 생활의 모든 면에서 더 깨어서 조심하게 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2천여년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로 태어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타고 오셔서 그의 성화된 교회를 이 지구상에서 수확하여 건져 올리시어, 준비된 어린 양의 결혼식으로 그들과 함께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신실한 크리스찬의 참된 소망이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이 이루어 지기를 큰 간절함으로 매일 기도하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20]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데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제 화평과 선함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어 더욱 섬김에 충실하고 그 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배하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왕중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곧 오시기 기도합니다. 아멘.